

인쇄하기



金北日報

인쇄

[HOME](#) > [스포츠](#) > [스포츠일반](#)

진안초 6학년 양명석 학생, 압도적인 기량으로 육상 800미터 전국 제패

국승호 | 승인 2020.10.25 21:33



진안초등학교(교장 최선용) 6학년 양명석 군이 전국육상대회 중장거리 종목에서 군계일학의 위용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육상 기대주 탄생을 예고했다. 양 군은 지난 21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'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' 남자초등부 800m경기에 출전해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며 우

승을 차지했다. 초등부 800미터는 초등학생 육상에선 최장거리 경기다(중학생 3000미터, 고등학생 5000미터, 대학은 1만미터).

이날 800미터 경기에서 양 군은 부드러운 질주 자세로 초반부터 선두 그룹을 유지했다. 그러다가 골인 200미터 지점부터 엄청난 막판 스퍼트를 선보이며 2위와 격차를 십시간에 2.5초가량으로 벌리고 1위로 골인했다. 양 군의 이날 결승 공식기록은 2분 17초 98이며, 2위는 경북 구평초 신재호 학생으로 2분 30초 24다.



진안초등학교 6학년 양명석 군

이날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인 '대한육상연맹(StN 스포츠)'을 통해 생중계됐다. 중계방송에서 해설자는 양 군에 대해 "기초가 훌륭한 선수"라며 "정말 엄청난 기량을 선보였다"고 극찬했다. 또 "질주 자세가 아주 바르고 연습을 아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"며 "대한민국 육상 기대주가 탄생하는 순간"이라고 해설하기도 했다.

코로나19로 올해 들어 초등학생 경기로는 처음 열린 이날 대회에서 양 군은 미래의 육상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.

진안초 육상부 소속인 양 군은 키가 작은 편이어서 장거리 경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. 이번 대회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 낸 것으로 전한다.

진안초 육종철 코치에 따르면 양 군은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눈에서 떼지 않고 훈련에 전념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.

양 군은 "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 대표 육상 선수가 돼 올림픽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"고 포부를 밝혔다.

최선용 교장은 "본인의 바람을 꼭 이루어 모교와 지역사회를 빛내는 장한 진안의 아들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양 군은 이번 대회 출전 전부터 전라북도 육상 관계자들에게 중장거리 유망주로 각인돼 있던 상태다. 지난해 열린 제31회 전북역전마라톤 대회에서는 일반부 선수들과 같이 레이스를 벌여 초등학생급 이상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. 지난해 5학년 땐 중학생들과 함께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.

저작권자 ©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